세계일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바이오·IT 8개 기업 공장 들어서

입력 2020-08-26 15:10:03, 수정 2020-08-26 15:19:53

포항시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기업이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포항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및 IT 분야 등 8개 회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바이오·IT·신소재 분야 8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에이엔폴리(대표 노상철), 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 바이오컴(대표 류봉열)은 포항공대(포스텍)에서 연구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출발했다.

이너센서(대표 강문식), 이브이에스(대표 이득진), 휴비즈아이씨티(대표 심희택)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성장했고 아이언박스(대표 오상택)는 포항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화이바이오메드(대표 한세광)는 서울 소재 기업이다.

이들 8개 기업은 2024년까지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 일원 포항융합기술지구 3만6848㎡ 땅에 451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시는 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7개사가 포항에서 사업을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투자유치 협약식은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R&D인프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